

# 결혼이주여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방안에 관한 연구

정영애\*

\*선문대학교 IT교육학부

e-mail:yajung@sunmoon.ac.kr

## A Study on Education Factors to Solve Digital Divide for Marriage Immigrants

Young-Ae Jung\*

\*Dept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 요 약

이 논문은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사회통합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정책에 관한 논의인데, 그 중에서 한국사회를 구성하는 기존 구성원들과의 정보리터러시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에 주목하였다.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들은 대부분 언어격차의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격차의 해소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활용능력과 정보의 습득이 곧 여러 가지 삶의 질이나 다양한 기회의 획득에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이 빠른 사회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언어교육뿐만 아니라 정보리터러시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교육의 현황을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정보리터러시 기준에 기초하여 정보교육의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구성요소 및 세부항목을 추출하여 정보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정보교육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 1. 연구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정보사회에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아내어 평가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능력”인 정보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사회의 흐름에 따라 세계의 각 나라에서는 국민들의 정보리터러시를 배양하기 위하여 정보리터러시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파악하여 정리한 정보리터러시 기준이나 모형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정보화의 수준은 2010년 UN의 전자정부발전지수(E-Government Development Index)와 온라인참여지수(E-Participation Index)에서 192개의 평가대상국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1]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발전지수(Development Index)를 2011년 9월 15일에 발표하였는데 한국이 조사대상 152개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ICT 발전지수는 ICT에 대한 접

근성, 이용도, 역량 등 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ICT 활용정도를 나타내는 이용도에서는 세계 1위를, 역량에서는 2위를, 접근성 부문에서는 10위를 차지하여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2] 이는 한국정보의 방송통신 규제환경 개선 및 인프라 고도화 정책 추진 등의 노력이 UN산하 전기통신 전문 국제기구인 ITU가 평가하는 객관적 지표로 증명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위와 같은 자료를 미루어보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수준이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이용도와 역량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IT강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보를 이용한 지식활용에서는 점점 양극화되어가고 있고, 이로 인한 정보격차는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정보역량이나 활용수준은 낮은 정보소외계층으로는 장애인, 농어민, 고령층, 저소득층 등이 있고, 최근에는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정 구성원,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이주민 집단이 정보소외계층으로 고려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의 구성

원으로 자라는 다문화가정의 2세들을 출산하고 그 2세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올바른 사회통합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그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었고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그러나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정보교육은 대체적으로 각 지역의 센터의 상황에 따라 진행이 되거나 심지어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구성원 수준의 정보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 2.1 중요 용어의 개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들 중 여성들을 결혼이주여성이라고 한다.

정보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라는 용어는 1974년 미국정보산업협회의 회장 Zurokowski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다. 1989년에는 미국도서관협회(ALA)의 정보리터러시에 관한 대통령 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정보리터러시를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4] 그 이후에는 정보가 필요한 때를 인식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를 송수신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의 개념이 되었다.

정보리터러시 격차의 개념은 명확하지 않으나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사용되었다. OECD는 정보격차를 “상이한 사회경제적 수준의 개인, 가정, 기업, 지역 간에 나타나는 정보통신기술의 접근기회와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위한 인터넷 이용의 차이”로 규정하였다.[5]

2001년에 제정된 우리나라의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제2조 1항에서는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격차는 정보리터러시의 격차와는 차이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더 협소한 의미일 수도 있다. 초기에는 전화, 컴퓨터와 인터넷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들의 물리적인 사용성이나 접근성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점차 단순한 사용성이나 접근성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능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

격차는 정보리터러시격차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격차에 초점을 맞추었다.

### 2.2 관련 선행연구

김이선은 외국인의 이주를 3단계로 정리하였는데, 그것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60년대 이후 대륙으로 이주하여 ‘고려인’, ‘조선족’으로 살던 한국계 외국인들이 냉전구조 해체와 함께 한국사회로 유입된 ‘민족주의적 이주’를 1단계이고, 1990년대 초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유입이 2단계이며 1990년대 중반부터 현저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을 통한 결혼이민의 증가를 3단계로 정리하였다.[6] 1990년대 초까지는 예외적으로 생각되어 배제되었던 국제결혼이 2000년대 이후에는 전체 결혼의 10%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대상이 주로 농촌과 농림업 종사자 위주인 특정지역이나 계층에서 지배적인 결혼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이수상의 연구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보리터러시의 수준을 수준이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비교분석하고 정보리터러시를 야기하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이주 노동자들의 정보리터러시 격차는 연령, 결혼여부, 직업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한국어교육 및 정보활용교육의 차이, 정보기술에 대한 적응력, 사회활동에 대한 적극성 외에 많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이용재는 부산과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과 게이트키퍼의 정보리터러시 수준을 설문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들이 일반 이주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8] 특히 “모국의 정보이용환경”은 한국의 정보리터러시 측면에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 3.1 결혼이주여성의 정보교육 현황

필자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주요기관 중의 하나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정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외에도 많은 기관들이 있으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2011년 8월에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정보교육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전화인터뷰는 중부지역의 1개의 도(道)에 위치한 15개의 센터에 시도하였다. 그 중 3개의 센터는 정보교육담당자의 부재

등의 이유로 인터뷰를 할 수 없었고, 나머지 12개의 센터에서는 인터뷰에 응하였다.

인터뷰 항목으로는 정보화교육의 시행여부, 교육내용, 정보교육의 강사현황으로 구성되었다. 정보화교육은 인터뷰에 응한 센터 모두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보화 교육내용은 컴퓨터활용, 워드프로세서, 파워포인트, 엑셀과 같은 OA 소프트웨어의 사용법과 더불어 ITQ와 같은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SNS나 메일의 사용, 사진 편집을 위한 포토샵, 스마트폰의 사용법에 대하여도 교육하고 있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진에 대한 답변에서는 50%에 해당되는 6개의 센터에서는 KT의 IT Supporters를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고, 1개의 센터는 해당 지자체의 정보화교육을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또 다른 1개의 센터는 인근 컴퓨터학원과 연계하여 정보교육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3개의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강사를 고용하여 정보교육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고, 나머지 1개의 센터에서는 담당자의 부재로 교육내용까지는 자세히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결혼이주여성 수강생들의 수준이나 특성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과 교육의 내용면에 있어서 각 센터별로 정형화되지 않은 교육과정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 수강생들이 결혼이주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커리큘럼이 거의 그대로 수행되고 있다는 점 등을 알 수 있었고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정보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특정지역의 일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전화인터뷰 결과만으로 정보교육의 실효성에 대하여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다양한 설문이나 인터뷰 등을 통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 3.2 정보리터러시 기준에 따른 정보교육 커리큘럼의 요소와 세부항목 개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정보교육 커리큘럼의 요소의 추출은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sup>[9]</sup>, ACRL의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s for Higher Education"<sup>[10]</sup>, ANZIIL의 "Australia and New Zealand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sup>[11]</sup>, SCONUL의 "the Seven Pillars of Information Literacy model"<sup>[12]</sup>에 기초하여 작성한 구성요소<sup>[13]</sup>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표1]은 위에서 언급한 6가지 구성요소와 세부항목이다. 각 세부

항목들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정보교육과정에서 최소한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1]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추후 상황에 맞게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하거나 기존의 항목들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정보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구성요소 및 세부항목

구성 요소	세부항목
문제 인식과 정보의 필요성 인지	평소생활에서 정보의 필요성 인식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의 필요성 인식 필요한 정보의 특성과 범위 인식
정보원 인지	행정기관 홈페이지 도서관 홈페이지 인터넷
정보의 접근, 검색, 수집	행정기관 홈페이지 - 관심정보의 검색 -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정보에 대한 정보의 주기적인 수집 도서관 홈페이지 - 갱신되는 도서목록에 대한 검색 및 수집 인터넷 - 포털 - 검색사이트 - 일반 홈페이지 검색방법 - 1개의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 - 여러 개의 키워드의 조합을 이용한 검색
정보의 활용	필요한 정보의 다운로드 및 데이터의 종류에 따른 관리 컴퓨터 파일, 폴더의 체계적인 관리 인터넷 브라우저 북마크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생산, 소통, 공유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서작성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한 발표자료의 작성 및 발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료의 관리 및 활용 사진/음악/동영상을 활용한 UCC의 제작 및 활용 메일을 이용한 소통 및 자료 공유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소통 및 자료공유 - 카페나 블로그 운영 및 자료공유 - SNS를 이용한 소통 및 자료공유 인터넷의 게시물이나 댓글을 이용한 의견의 표현 및 공유
정보 윤리 (인터넷 윤리 포함)	인터넷 이용시 개인정보보호 및 저작권 보호 인터넷을 이용한 멀티미디어의 합법적 이용 인터넷 예절 준수 인터넷 중독/게임중독의 위험성인지 및 예방법실천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부지역의 한 개 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결혼이주여성들의 정보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12개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정형화, 표준화되지 않은 정보교육이 수강생들에 대한 특성이나 수준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강생들의 수준에 맞는 커리큘럼을 정보리터러시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는데, 그 구성요소들은 총 6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커리큘럼에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들어가야 하는 최소한의 항목들을 명시하였다.

이는 한국 정보화사회의 기존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결혼이주여성에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기존의 구성원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정보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위에서 제안한 교육의 내용들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이주여성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PC의 보급이 필요하다. 둘째, 출신 국가와 교육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정보교육을 받은 이주여성들 중 강사수준으로 교육할 인력을 발굴하여 모국어를 사용하는 정보교육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정보교육이나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면 최대한 많은 이주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는데도 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정보교육 후에는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문화 교육, 자녀교육을 위하여 E-Learning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국가정보화백서』 (서울: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pp.37-39.  
 [2] 방송통신위원회, “ITU ICT발전지수 평가 발표자료”, <http://www.kcc.go.kr/>(검색일: 2011. 9.16)  
 [3] 류정아, 『다문화지표개발연구』, 2009, pp.39-50  
 [4] Zurokowski, Paul G. The Information Service Environment Relationship and Priorities, National Program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Washington D.C., ED 100 391, 1974

[5] OECD, Understanding the Digital Divide, p.5, 2001  
 [6] 김이선, 황정미, 이진영,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7] 이수상, 장임숙, 다문화사회의 이주노동자의 정보리터러시 격차,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1권 제3호, 2010  
 [8] 이용재, 조용완, 결혼이주여성 게이트키퍼 분석을 통한 이주여성의 정보리터러시 향상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1권 제3호, 2010  
 [9]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Final Report,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 <http://www.ala.org/acrl/nili/ilit1st.html>, 1989  
 [10] ACRL, Information Literacy Competency Standards for Higher Education, <http://www.ala.org/ala/mgrps/divs/acrl/standard.pdf>, 2000  
 [11] ANZIIL, Australian and New Zealand Information Literacy Framework - principles, standards and practice, <http://www.anziil.org/resources/Info%20lit%202nd%20edition.pdf>, 2004  
 [12] SCONUL, Information skills in higher education: a SCONUL position paper, [http://www.sconul.ac.uk/groups/information\\_literacy/](http://www.sconul.ac.uk/groups/information_literacy/), 1999  
 [13] 정영애, 다문화 가정 유아들의 정보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에 관한 연구, 한국융합학회, 2010.3